

### 다문화가족 송년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다문화가족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일 시: 12월 15일(금) 18:30~20:30
- ▶내 용: 다문화가족 송년회(뷔페식사, 레크레이션)
- ▶대 상: 다문화가족 180명(가족참여 우선)
- ▶장 소: 태흥뷔페
- ▶신청기간: 11월 28일 09:00~ ※선착순 모집
- ▶접수문의: 홈페이지 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 필수  
(gochang.familynet.or.kr)  
전화(561-1366)

### 국적취득비용 지원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인원: 2023년 6명(\*2024년 4명 예정)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2023. 01. 01. 이후 국적취득 한자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고창군에 주소를 둔자

\*선착순 접수(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만 인정)  
▶신청서류: 국적취득비용 지원금신청서(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상세), 통장사본

### 다문화이해프로그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요!

다문화인식개선의 일환으로 2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 12월말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고창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나라의 결혼이민자들이 강사가 되어 모국 문화에 대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창관내의 여러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T. 561-1366**

고창군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gochang.familynet.or.kr>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부모교육, 자녀학습지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어머님들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한국어교육 및 자녀양육교육,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도, 독서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대 상: 자녀(만 6세~12세),  
결혼이민자(임산부~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 ▶장 소: 가정 및 유치원, 학교
- ▶문 의: 담당자 김소정(561-1366)

###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아동 모집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초등 돌봄 아동을 모집합니다.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돌봄 특화시설로써 초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하는 저학년 자녀의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해 돌봄 교실에 참여할 아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등용 도서, 보드게임, 레고 등 다양한 놀잇감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단 아동을 위한 차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즐겁게 배워나가요^^

- ▶돌봄대상: 고창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돌봄장소: 고창읍 중앙로 330 선운교육문화회관 2층 공동육아나눔터
- ▶돌봄인원: ~충원시까지
- ▶돌봄시간: 학기중 13:00~18:00, 방학중 09:00~18:00 (방학중 중식은 자부담)
- ▶이용요금: 무료
- ▶모집기간: 수시모집
- ▶모집요건: 맞벌이가정(특성가구 우선 우대), 서류제출 선착순
- ▶돌봄내용: 상시프로그램(주2회) 외 다양한 프로그램 무료, 제공 및 놀이 숙제 등 지도
- ▶문의: 공동육아나눔터 563-7077  
고창군가족센터 561-1366

## 엄마랑 함께 배우는 남해역사 탐방

10월 28일 다문화가족 엄마와 자녀가 함께 남해역사 탐방을 다녀왔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장군의 유적지를 찾아 해설사와 함께 남해 충렬사와 이순신순국공원을 둘러보며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남해의 금산이라 불리는 보리암은 원효대사께서 창건한 유서 깊은 절로 바위산을 등지고 놓여있어 보리암에서 내려다보는 가을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다문화가족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한 남해역사 탐방은 가을 단풍과 함께 우리의 추억으로 자리했다.



## 가족사랑의 날[통합가족프로그램] 배빼로데이~내마음을 받아줄랑가~

11월 9일 배빼로데이를 맞이해 온가족이 모여 배빼로를 만들고 평소에 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참여한 가족들은 얇고 길쭉한 과자에 초코렛을 바르고 예쁜 스팅글과 과자를 붙여 꾸며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 친정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 나들이

언제나 보라색인 퍼플 섬! 지난 12일 친정가족들과 함께 신안군 퍼플섬을 방문하였다. 예쁜 보라색 섬도 구경하고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에 견학하여 신안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친정가족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고, 추운 날씨였지만 가족과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친정가족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체험도 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고, 추운 날씨였지만 가족과 함께여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다문화인식개선문화공연-샌드아트

지난 14일 동리국악당에서 다문화인식개선문화공연을 진행했다. 이날 고창초 등 5개 초등학교 400여명의 아이들이 공연을 관람했고, 샌드아트공연과 마술, 레이저쇼 등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문화 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맞벌이 가족을 위한 경제 교육

맞벌이 가정의 효율적인 돈 관리 및 노후 준비를 위한 경제 교육이 지난 21일(화) 저녁 7시 센터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나을주 소장(재무경제연구소)은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재테크 수단 등을 설명했다. 덧붙여 개개인의 처한 상황과 돈을 모으는 목적, 목표에 따라 현명하게 돈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참가자는 "요즘 들어 노후 자금과 아이들 통장 관리 등에 고민이 있었는데, 많은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중언어 발표회



22일 2023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혼이민자와 다문화자녀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다문화자녀들이 노래와 율동, 동화, 발표문 등 다양한 장르를 엄마 모국어인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등으로 발표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이중언어 실력을 발휘했으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T. 561-1366**

고창군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gochang.familynet.or.kr>

## 제18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



다문화가족과 고창군민의 화합의 장인 ‘제18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가 11월 4일 모양성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6명의 다문화자녀가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회장 등 내빈과 함께 무대에 올라 어머니나라 언어로 진행한 개회선언, 6개국 세계문화 체험부스, 다양한 문화 존중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베트남 전통춤, 필리핀 마스카라축제 퍼레이드 재연, 푸드트럭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의미 있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고창군민과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는 다년간 다문화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NH농협고창군지부장 이문구씨와 다문화가족 탁동수씨가 고창군수 표창을, 캄보디아출신 결혼이민자 이승혜, 방문교육지도사 김재화씨가 고창군의회 의장 표창을, 고창군가족센터 언어발달지도사 김기순, 검정고시강사 윤명자씨가 법인대표이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제주도 가족 여행권의 행운은 고창읍 이연담·김석근, 상하면 박서현·노형빈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날 봉사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3 도전! 외국인주민 한국어 골든벨



지난 4일 모양성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2023 도전! 외국인주민 한국어 골든벨’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근로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그동안 같고 닳은 한국어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대회 한 달전 배부된 예상문제집에는 한국속담·맞춤법·문법 등 한국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상식 문제 등 총 500개가 넘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문제집을 통째로 암기하여 출제된 문제를 모두 맞추자 현장에서 구경하던 관중들이 외국인주민들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고, 주최측 역시 더 어려운 문제를 찾느라 힘들었다고 한다.

이날 1등 우엔티탄 응안(베트남), 2등 조유진(중국), 3등 이흥미(베트남)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